

# 만남



## 교회표어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출애굽기 3:5, 10)



### 표지

겨울의 찬 기운을 이겨내고, 따스한 햇살 아래 환하게 핀 봄의 전령사 개나리를 보면서, 새 생명의 기운을 느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계절 봄을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합니다.

사진 유승현 집사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 실현

### 5대 본질

예배   선교   교육   성도의 교제   봉사

### 3월 목회력

- 01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5 수 ·재의 수요일
- 08 토 ·연합 토요직장권찰모임 개강
- 16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 새가족환영회
- 23 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 사회봉사주일
- 30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

- 02 주일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 07 금 ·연합권찰모임 상반기 개강
- 09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 제직회
- 21 금 ·심방준비회
- 25 화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 만남

2025년 3월호  
통권 612호

## Contents



### 이달의 말씀

02 영원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 김운성

### 교회창립 80주년 특별기획

04 사송영락교회 창립·현당예배 김경옥

07 전혁 사송영락교회 초대 담임목사 인터뷰 인 미

### 특별기고

10 사순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병주

12 ‘나라 바로잡기’가 이 시대 삼일정신 안교성

### 특집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는…

16 유니게학교 30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웁니다 김정옥

18 마더와이즈, 하나님의 지혜 찾아 동행 박수경

20 영어도 믿음도 쑥쑥… 영락 어와나, Wow!

22 전도훈련학교…내 입술을 복음 전하는 무기로 김현정

### 만남 그리고 사람들

24 초임 제직부서장 신년 포부②

### 땅끝까지 이르러

28 필리핀 의료 선교… 청년 의료인 대거 참여 정일형

30 영락 기독교사들 “믿음으로 비상하는 학원선교사” 이찬희

32 뉴코리아국제학교를 아시나요? 이나영

### 다음세대 / 청년광장

34 유년부 가족입학식… 하나님 나라 학부형 된 기분 변주은

35 2025 중등부 겨울수련회 The blessing 윤태수, 정재아

38 사랑 넘치는 사랑부, 조금 ‘나쁜(?) 선생님’ 손위혁

40 대학부·고등부 단기선교 이성진, 류보배, 김미주, 방도윤

46 사랑 낚는 어부… 말씀이 삶의 비전으로 김소현

48 당신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김찬미

### 영락의 울타리

49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50 온가족 함께 봉사하니 축복 넘쳐 김대준

52 거룩한 부르심… 기도하는 제2남선교회 이진하

54 기도와 헌신의 화신, 제3여전도회 김영희, 신진숙

### 교회소식

56 2025 제직부흥회 의

60 아몬드나무에 탄생과 부활의 꽃송이 활짝

61 영락시어터 3월 상영 영화



## 영원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

김운성 위임목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계절은 네 개이며, 그래서 사계절이라고 합니다. 삼계절, 오계절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면 삼계절, 오계절이란 말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사계절을 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로 말합니다. 봄부터 세는 것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반면에 겨울은 맨 마지막입니다. 그 이유는 겨울은 모든 것을 끝내는 폭군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을 단풍을 좋아하는 저는 겨울이 미웠습니다. 어느 날 악동처럼 갑자기 시베리아의 얼음 바람을 몰고 와서 그 곱던 단풍을 흩어버리니 아속합니다. 겨울이 한바탕 난동을 부린 후에는 삭막함만 남습니다.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어 외출도 힘듭니다. 연약한 어르신들을 집에 가두는 것도 겨울입니다.

그런데 소리 없이 다가와 겨울이 끝낸 세상을 다

*3월은 봄의 첫 달이자 시작하는 달*

*끊긴 생명의 길을 이어주는 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다리*

*사순절, 오직 주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시 시작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봄입니다. 봄은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게 하고, 쨍쨍하던 겨울 세상은 봄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봄은 다 끝난 것 같은 생명들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겨울은 파괴하고, 봄은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겨울은 끝이고, 봄은 시작입니다. 계절의 시작을 봄에게 돌릴 이유가 충분합니다.

3월입니다. 3월은 봄의 첫 달이고, 시작의 달로 인식됩니다. 조무래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3월입니다. 우리는 이 3월에 시작하게 하고, 이어주시는 분을 만납니다.

정호승 시인은 <봄길>이란 시에서 끝난 길을 이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출처 : 정호승 시집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길이 끝나는 곳에서 사람들은 멈춰 섭니다. ‘길이 없네’라며 돌아섭니다. 그런데 거기 새 길을 여는 사람, 스스로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곳을 넘는 등산가들은 교대로 앞장을 섭니다. 맨 앞에서 길을 여는 것은 엄청난 체력을 요구합니다. 산에 익숙한 베테랑 산악인이 교대로 길을 여는 과제를 담당합니다. 다른 이들이 그의 발자국을 따라 걷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이란 괴물 앞에서 멈춥니다. 거긴 길이 없습니다. 길을 끊은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은 끊어지고, 우리는 죽음과 멸망의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은 편으로 넘어가게 해 주는 다리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건너편 영생의 나라로 가도록 길이 되셨습니다. 당신을 밟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다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사이먼 앤 가펩클의 노래 <힘한 세상의 다리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훨씬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이어주시는 다리요, 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정호승 시인의 표현처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은 분’입니다.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만남**

교회창립 80주년 기념 첫 사역 사송영락교회 창립·헌당예배  
부산·경남 일원 복음의 전초기지 되길...





### 개방·포용성 갖춘 예배당 … 전혁 초대 담임목사 청빙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확정 사역 중 첫 사역으로 진행된 사송영락교회 개척이 1년 여에 걸친 건축 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2월 12일(수)에 교회창립 및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날 오전 11시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에 소재한 신축 예배당에서 드린 사송영락교회 창립 예배에는 이철신 원로목사, 김운성 위임목사를 비롯한 영락교회 성도 250여 명과 정지훈 목사를 비롯한 양산중앙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석했다.

양산중앙교회가 봉헌한 양산시 사송 신도시 내 종교부지 354평에 영락교회 주관으로 건축된 사송영락교회는 지상 3층 및 지하 1층 규모(전체 면적 1,375㎡, 534평)로 280석의 대예배실을 갖췄으며, 지역주민을 배려한 개방성과 포용성을 갖춘 설계가 눈길을 끈다.

이날 예배는 1부 교회창립 감사예배와 2부 헌당예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순미 장로(8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교회창립 감사예배는 최승도 목사

(선임 부목사)의 기도와 박홍준 장로(당회 서기)의 성경 봉독, 양산중앙교회 할렐루야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김운성 목사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태복음 16:15~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운성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부산영락교회부터 양산중앙교회, 사송영락교회로 이어진 선교역사를 언급하면서, “사송영락교회를 복음화율이 낮은 부산과 경남 일원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전초기지로 세우신 줄 믿는다”고 전했다. 이후 영락교회 시무장로들의 봉헌송과 이창선 장로(80주년기념사업회 회계)의 봉헌기도, 정천우 장로(80주년기념사업회 부위원장)의 개척경과보고가 이어졌으며, 서상현 장로(선교부장)가 초대 담임목사로 청빙된 전혁 목사를 소개하고, 김요롱 목사(부산남노회장)는 교회창립 격려사를 통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2부 헌당예식에서는 심재수 장로(80주년기념사업회 교회개척분과장)의 건축경과보고 후 예배당 건축현장 감독으로 섬겼던 양산중앙교회 노흥기 장로가 현대적이



헌당예배 동영상은 다음 QR코드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를 돋우었으며, 이철신 목사의 축도로 헌당예식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 영락 선교역사의 새 장 ... 교회 개척 새 비전 제시

사송영락교회 개척은 교회창립 직후였던 지난 1946년 인천제일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80년간 면면히 이어진 영락교회 선교역사의 새로운 한 획이 되었다. 영락교회는 한국전쟁 중, 피난지였던 부산에 부산영락교회를 설립했으며, 부산영락교회 남산교회는 양산중앙교회를 개척하고 신앙공동체를 이어나갔다. 양산중앙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 종교부지를 봉헌하고 이를 통해 영락교회가 사송영락교회를 건축하면서, 영락교회는 개척한 교회와 함께 또 다른 교회를 창립하는 선교의 새 역사를 쓰게 됐다. 80주년기념사업회는 사송영락교회 개척이 단순한 예배당 건축을 넘어 새로운 교회를 낳는 모태 교회로서의 영락교회 선교정신을 계승하고, 아울러 위축된 한국 교회에 교회 개척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교회 개척의 의미를 밝혔다. **만남**

취재 김경옥 기자

고 친화적인 공간으로 설계 시공한 교회시설의 건축 개요 설명과 더불어, 1층에 자리 잡은 북카페를 비롯해 지역사회와의 친화를 돕는 개방적 공간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김운성 목사가 전혁 목사에게 예배당 열쇠를 증정하는 순서인 헌건식(사진 아래)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헌당교독문 낭독과 김운성 목사의 헌당기도가 있었다. 이후 전혁 목사가 하나님께 예배당을 온전히 봉헌함을 공포했다.

건축 부지를 봉헌한 양산중앙교회를 대표해서 정지훈 목사가 축사를 통해 예배당 헌당 과정을 회고했고, 김운성 목사가 설계사와 시공사, 현장 총감독에게 감사패를 증정함으로써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헌당예식에서는 전혁 목사가 대표로 있는 찬양사역팀 '예람위십'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



## 청년·신혼부부 많은 도시 사송 합한 콘텐츠로 ‘젊은 목회’ 펼 것

- 전혁 사송영락교회 초대 담임목사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사송영락교회 개척. 사송영락교회는 창립·헌당예배에 앞서 초대 담임목사로 전혁 목사(사진)를 청빙했다.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18년간 사역한 전혁 목사는 청년사역과 문화선교에 달란트를 지닌 목회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찬양사역팀 ‘예람워십’은 최근 한국 교회 청년,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찬양팀으로 주목받고 있다. 월간 『만남』에서는 사송영락교회 창립예배를 앞두고 전혁 목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작년 12월 6일 영락교회 금요기도회 강단을 통해 영락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던 전 목사는 예배당 헌당을 앞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자세히 전해주었다.

### 어머니의 서원 “하나님! 제 아들 살려만 주시면…”

제가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숨이 멎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죽어가는 저를 두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 아들을 살려만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 시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부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던 저는 대학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무렵 오토바이를 타다

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생각지도 않았던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가 생겼고, 이를 이루기 위해 밤낮없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많은 분의 기도로 결국 저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 아들의 서원 “하나님! 어머니를 낳게만 해주시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음악에 심취해 있었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는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영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있을 때, 평소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외면했던 ‘목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며, 유학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서원대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고백을 사용하셔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의 길로 들어선 저를 철저히 훈련하셨습니다. 부산장신대 신대원을 거쳐 2007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동래중앙교회에서 사역하도록 하시며 어린이부터 다음세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섬기게 하였고, 지금까지 다양한 사역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 부산과 경남 잇는 사송, 청년·신혼부부 1만 5천 세대 밀집

양산 사송지역은 부산 인구의 과밀해소를 위해 조성된 신도시로서, 부산과 경남을 잇는 입지적 장점과 부산 생활권에 가까운 접근성(2026년 상반기 양산도시철도 개통 예정, 사송과 부산 금정구 5분 내 연결)으로 약 1만 5천 세대 규모에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개발 도시입니다. 이처럼 사송지역은 젊은 세대가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교인들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자녀로 둔 3040 세대가 다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송영락교회는 젊은 세대와 자녀를 위한 사역과 예배 환경을 조성하면서 도전적이고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청년사역과 찬양사역을 통해 축적된 경험에 시너지를 발휘하여, 뜨거운 예배를 중심으로 3040 세대를 품는 새로운 지역선교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 청년·찬양사역 경험 살려 지역주민 품어야죠

사송영락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중점을 두고 예배당 구조와 교회학교 활동공간을 영유아 세대부터 청장년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응답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을 섬기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사송지역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층에 북카페와 식당을 배치해,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

게 했습니다.

사송영락교회는 양산중앙교회의 개척 멤버 파송과 섬김의 협력, 영락교회의 기도와 재정 지원 속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두 교회의 협력을 통해 지역 복음화와 자립에 힘쓰고,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배당 건축 이후 양산중앙교회 성도 중 일부가 사송영락교회로 이적해서 교회 봉사와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도와 교회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사송영락교회 창립과 주일 예배에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 이제 주님의 시선은 이곳에... **답대하게 사역 시작**

18년 전 처음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부담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은 맡길만 하나까 맡기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고 담대히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송영락교회는 영락교회와 부산영락교회, 그리고 양산중앙교회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영락교회도 사송영락교회가 독립교회로서 빠른 기간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부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장로교 신앙의 흐름 안에서 훈련받은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목회하겠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만남**



정리인미기자

#### 사송영락교회

주소 양산시 내송큰들로 146 사송영락교회  
 TEL 055)781-1102 | FAX 070)4032-4771  
 유튜브 <https://www.youtube.com/@ssyoungnak.church>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syoungnak.church/>  
 홈페이지 [www.ssyng.co.kr](http://www.ssyng.co.kr)



#### 예배 안내

예배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1:30	모리아 홀(본당 3층)
수요사경회	추후 공지	
금요기도회	추후 공지	
새벽기도회	추후 공지	

#### 교회학교 예배

영·유아·유치부	11:30	믿음 홀(본당 2층)
초등부	11:30	사랑 홀(본당 2층)
청소년부	10:30	
청년부	추후공지	

# 사순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 부활절에 받는 세례 준비하는 기간에서 유래

초대교회로부터 이루어진 교회력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사역, 수난당하심, 죽으심, 부활, 영으로 임하심, 재림 등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절기는 부활절인데, 이때는 유월절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뒤 노예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사건의 기념이었듯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겼습니다. 세례와 깊은 관계가 있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사순절(四旬節)로 삼았는데, 사순절은 참회의 수요일(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40시간 → 40일 ... 예수 수난 묵상, 참회 기간으로 확장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은 처음 1세기에는 단 40시간 동안 지켰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서 40시간 동안 있었던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3세기에 이르러서는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다가, 나중에는 30일간으로 연장했으며, 마침내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사십 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순절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사순절은 그런 의미보다는 부활절에 세례받는 이들을 위한 준비 단계로 시작했습니다. 1세기 말엽 초대교회 안에서 회람되었을 것으로 간주되는 '디다케'(Didache)와 같은 문서는 세례 준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 베풀 자와 세례받을 자, 그리고 할 수 있는 다른 이들도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례받을 자를 미리 하루 혹은 이틀 금식하도록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례는 후에 40일간으로 길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체 공동체가 세례 언약을 갱신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세례를 맞이하기 위해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기도를 통해 엄숙하고 거룩하게 준비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도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동일하게 40일간 준비했습니다.

그 후 어거스틴 때에 이르러서는 세례받는 이들의 준비 기간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모든 그리



전병주 목사  
강북·도봉교구, 예배부,  
음악부, 안수집사회

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자기를 부정하고 참회하는 절기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기간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간으로, 우리 과거의 모든 실패와 죄악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요아힘 파티니르(Joachim Patinir)가 그린 <그리스도의 세례>(Baptism of Christ)

### 회개와 부활신앙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내길

초대교회의 사순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세례와 관련된 사순절의 의미는 퇴색하고, 교회는 회중들에게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얘기하면서 금육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금식을 병행해야 하겠지만, 실제 금식과 같은 자기 절제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세례 가운데 살라!"라고 촉구했는데, 세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삶에 대한 죄의 권세를 거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례받을 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탄과 그의 모든 것과 절교하겠습니까?" 즉

죄의 권세와 절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설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로 자신을 개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바로선다면 우리를 억압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영락교회 모든 성도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회개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 ‘나라 바로잡기’가 이 시대 삼일정신

올해는 삼일운동 106주년이다. 삼일운동이 민족사에 결정적 전환점인 만큼 그 정신을 되새기고자 삼일운동을 세 단계로 나눠 다루고자 한다.



## 삼일운동의 기원과 한국 교회

삼일운동의 국내적 요인으로는 한국인의 독립 정신이, 국제적 요인으로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주로 거론됐다. 한국 교회는 독립 정신을 이어가고, 민족자결주의를 전달하는 통로였다. 1911년 일본 제국이 테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를 이유로 서북지방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105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한국교회의 독립 정신은 10년 동안 식지 않다가 삼일운동으로 분출했다. 한편 민족자결주의가 한국에 전해졌을 때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한국 교회는 민족자결주의를 적극 수용하면서 삼일운동에 참여했다.

삼일운동의 기원과 한국 교회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만남이다. 근현대서구선교운동이 서구제국주의와 중첩되면서 제국주의와 선교의 연루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기독교는 반민족주의적 종교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였다. 한국을 침략한 제국이 서구가 아닌 일본이었기 때문이다. 선교사는 한국인의 정치적 열망에 공감하면서 제국주의의 선봉이 아닌 민족주의의 동반자로 여겨졌고, 한국 교회는 성경 특히 출애굽기에서 해방의 메시지를 읽어내면서 민족주의적 희망을 발견했다. 그 결과 한국의 기독교는 애교애국(愛教愛國)의 종교가 됐다. 기독교는 전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래 종교였지만, 동학혁명의 전통을 지닌 천도교와 호국불교의 유산을 가진 불교라는 대표적 민족종교와 더불어 삼일운동의 주축이 됐다.

둘째, 기독교와 평화주의의 만남이다. 한국 교회는 삼일운동에 참여하면서 비폭력주의 고수를 강조했다. 삼일운동 당시 총인구 대비 기독교인 비율은 낮았지만, 참가자 비율도 피해자 비율도 높았다. 가령 한국장로교회의 경우, 현직 총회장인 김선두 목사가 투옥되자 총회가 연기됐고, 부회장인 마뻬 선교사가 사회를 봤다. 게일 선교사가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을 때, 삼일운동



안교성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장

으로 투옥된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보고 감옥이 부흥회 장소가 됐다고 고백했다. 한국 교회는 민족을 위해 고난받는 교회 이미지를 갖게 됐지만, 한국 교회만 고난받지는 않았다. 가령 ‘제암리교회 사건’에서 기독교인 이외에 천도교도와 비종교인 등도 희생됐다. 이런 맥락에서 순교냐 순국이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삼일운동과 관련해, 한국 교회가 주도적 역할을 내세우기보다 동참했던 다른 이의 역할도 존중한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 삼일운동 적극 참여한 한국 교회

삼일운동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삼일운동은 임시정부 수립 운동으로 이어졌고, 상해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국호 중 ‘대한’은 통일 한국을 의미하는 동시에 대한제국이라는 국가 전통을 이었다. 그러나 ‘민국’은 ‘제국’의 연장이 아니라 ‘민주국가’의 탄생을 의미했다.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한국인이 삼일운동에 참여했듯,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온갖 어려움 속에도 지속된 임시정부는 존립 자체로 한국인의 독립 정신을 과시했다. 사실 모든 망한 나라가 임시정부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 국가를 이어갔고, 임시정부를 중시했으며, 종전 후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드골이 대통령이 됐다. 한국에서도 해방정국에 정치가들이 저마다 임시정부의 일원이었음을 자처했다. 가령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의 공용 연호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했다.

한국 교회는 임시정부에 초기부터 적극 참여했다. 33인 중 한 명인 김병조 목사가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이 됐고,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을 돕고자 <한국시사진술서>를 발표해 국제연맹과 만국장로교연합총회에 제출했으며, 『한국독립운동사략』도 저술했다. 김병조를 비롯한 다수의 기독교인이 임시정부의 주축을 이뤘고, 해방 후 지도자로 등장한 인물의 대다수(김구, 김규식, 이승만, 여운형 등)가 기독교인이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했을까? 비록 일제강점기의 한국 교회는 국내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타협적인 모습을 보였



지만, 국외에서는 해방과 독립을 준비했다. 희망의 종교를 신봉하는 한국 교회는 영생의 소망과 더불어 독립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 삼일운동이 민족사에 끼친 영향

삼일운동은 특정 시기나 장소에만 적합한 운동이 아니었다. 조국의 망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왔지만, 보편성의 원리뿐 아니라 영원한 의의를 지닌 운동이었다. 삼일운동은 민족사, 아시아 역사, 세계사에 영향을 미쳤다.

삼일운동이 민족사에 미치는 영향은 헌법 전문에 잘 나와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첫 문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삼일운동과 연결한다. 삼일운동은 아시아민족운동의 대표적 사건이 됐다. 중국에는 5·4운동에, 인도에는 간디의 비폭력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삼일운동은 세계사적 의의도 지녔다. 독립선언서는 민족주의적 상황에서 작성됐음에도 보편적 인도주의를 함께 담고 있다. 독립선언서 전문과 공약 일부를 살펴보자.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대의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을 따라 함께 나가기 위하여… 1. 오늘 우리의 행동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적 요구이지만,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달지 말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특수성과 보편성, 민족주의와

인류애의 균형은 삼일운동의 특징이고,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삼일운동의 적극 참여자요 주역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한국 교회는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에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나라를 되찾은 오늘날 저항적 민족주의를 넘어 건설적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하고, 이에 따라 민족주의의 특성도 달라져야 한다. 민족주의는 복잡하고 오용되기 쉬운 이념이다. 민족주의는 애국주의로 이어지지만, 자칫하면 극단적인 국수주의로 변질한다. 국수주의는 국제적으로 외국에 대한 혐오, 국내적으로 독재자에 대한 맹종이라는 전체주의적 특성을 나타낸다. 가령 일본 교회는 한일강제병합 당시에는 한국 교회와 더불어 망국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가나안땅이 열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선교 기회가 주어졌다고 기뻐했다. 일본 교회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맹목적인 황국사상을 추종하면서 기독교를 왜곡했고, 형제 교회인 한국 교회가 우상 숭배인 신사참배에 굴복하는 데 한몫 거들었다. 한편 독일 교회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를 구세주로 착각해 열렬히 환영하면서 어용 교회가 득세하면서 저항적인 고백 교회를 탄압했다.

삼일운동은 한국 교회가 민족 교회로 전환하는 기회를 이끌었고, 한국 교회는 삼일운동에 기여하는 기회를 잡았다. 그런데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에는 나라 찾기가 중요했지만, 나라를 되찾은 해방 이후에는 나라 바로잡기가 중요하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적절하고 정당한 역할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이제 한국 교회는 삼일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동시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삼일운동정신을 이어 나가야 한다. **만남**

# #철을 따라 꿀을 먹이시는...

교회에서의 양육과 목양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영락교회는 2025년 새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돌봄과 가르침을 통해 믿음이 자라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양육과 목양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과정입니다.





## 유니게학교 30년 여정 하나님의 자녀로 키웁니다

###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한 어머니 유니게처럼...

먼저, 이 시간을 통해 지난 섬김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96년 영락교회에서 시작된 유니게학교는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유아기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했던 어머니 유니게 이름을 딴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가 교육 표어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봄과 가을 학기마다 12주 동안 진행하며, 말씀에 기초하여 기독교적 부모상을 정립하고, 기독교 가치관과 태도로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부모, 부부,

자녀, 양육, 훈육, 공감, 코칭, 기질, 예배, 은사, 미디어, 환경 등의 주제를 나눔으로 일상에 실제로 적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봄·가을 12주씩... 매 학기 다양한 가정 '공감의 장'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지치고 힘든 이들이 많기에 교재 속의 질문을 나누며 눈물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성 있는 교재를 통해 나만의 어려움이 아님을 느끼며,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도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 교재 나눔 시간을 위해 기도도 준비해도, 교사로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면, 교사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여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학기마다 하나님은 제게 어떤 가정을 만나게



김정옥 권사  
종로·성북교구  
유니게학교 교사



하실까? 어떤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며, 만나게 하실까? 그 뜻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에 묻어야 하는 만남, 때로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만남, 때로는 힘을 주시기 위한 만남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곤 합니다.

### 3월 개학... 새 교재로 3040 믿음의 부모 세워갈 것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세 아이 모두 유니게 학교를 수료했으며, 저 또한 13년 동안 유니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유니게 학교를 섬기게 하신 주님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라는 유니게학교 표어를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끄실 아이들의 삶을 기대하며, 세상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주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유니게 섬김의 여정이 있었기에 가능했구나 고백하며 감사드리곤 합니다.

유니게학교는 2024년도에 유니게 교재 개정을 통해 새 교재를 출판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2월, 2회에

걸쳐 많은 교회와 교역자, 교사를 모시고 진행한 전국 지도자세미나 과정에서 3040 부모 세대를 향한 기대와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 세대를 든든히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3월부터 유니게학교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유니게학교를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유니게학교의 여정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유니게학교 문의 : 02)2280-0320



## 마더와이즈, 하나님의 지혜 찾아 동행

### 엄마, 아내, 딸로서 하나님 위로와 은혜 공유

올해로 5기를 진행하는 상담부 가정사역 마더와이즈는 성경말씀 나눔, 중보기도, 멘토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재를 『지혜』와 『회복』으로 정하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모여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마더와이즈가 올해는 교재 『동행』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의 자기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일상을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그룹별 말씀 묵상으로 은혜를 나누는 후, 토요일 오전에 전체가 모여서 나눔과

중보기도,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벅찬 감사를 누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겨울과 같은 시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참여하는 자매님들을 믿음의 어머니로, 아내로, 딸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소그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함으로써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참여하시는 모든 자매님이 큰 힘을 얻어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도 마더와이즈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많은 자매님이 은혜의 감격을 나누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찬양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의 은혜와 감격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박수경 집사  
성동·광진교구  
마더와이즈 팀장

## 신앙의 길잡이...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더 견고해져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마더와이즈는 여성이며, 어머니이며, 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나침반 같은 길잡이였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자매들과의 나눔을 통해, 가정을 은혜롭게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확실히 깨닫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을 말씀과 기도로 풀어나가는 경험도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석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을 또 한 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마더와이즈 4기 이효진 성도

마더와이즈 '지혜'에 참여하며 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욱 견고해졌음은 무엇보다도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주 나눔 시간에 조원들과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사람씩 기도로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되어, 감사의 감사를 알게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더와이즈 4기 리더 유현승 집사

## 마더와이즈 5기 “동행” 일정 안내 및 모집

### 일정

3/22-4/26  
매주 토요일  
(6주간)  
10:30~12:30

### 인원 및 방법

어머니 20명 내외  
실시간 줌  
(1주, 6주는 봉사관  
404호 모임)

### 회비

5만원  
(교재 및 기타)  
우리은행  
1005-201-610374  
상담부

### 신청



**문의** 상담부(봉사관3층) 2280-0171 팀장 010-8506-8438



## 영어도 믿음도 쑥쑥... 영락 어와나, Wow!

### 초등생들 영어로 성경 외우고 신앙성장 도와

2024년 3월부터 시작한 영락 어와나(Awana) 프로그램이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었다.

2024년 봄 학기에 48명이 참여했으며, 가을 학기에 는 대기 중이던 아이들이 합류하여 총 8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참여 학생 수를 70명 규모로 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특히, ‘영어 보조반’을 통해 영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 매주 금요일 양육자와 함께하는 가족 프로그램

어와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국제예배부 정준희 목사는 “어와나는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며 신앙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영어 활용에 준비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신앙 성장과 가족 전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어와나는 아이들만의 것을 넘어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이 어와나에 참여하는 시간에 양육자는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여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통해 온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됨으로써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더한다.

### “주중에 학원이 아닌 교회 가는 게 기뻐이었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하나 집사는 “아이들과 말씀 암송을 꾸준히 하던 중 어와나 소식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로 신청했어요. 아이들이 주중에 학원이 아닌 교회로 향하는 점, 양육자도 금요기도회로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어와나에 참여한 강력한 동기였어요.

아이들이 매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암송뿐만 아니라 팀별 게임과 리더 교사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밝은 표정으로 사랑을 표현해주신 선생님들의 모습이 매우 기억에 남아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 긴 시간 기도로 쌓아 오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강제적인 암송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음원과 독려의 기도를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부모도 동참하여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인 어와나 마지막 시간에는 암송 시상과 열심히 모은 달란트로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아이들이 더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더욱 의미 있었던 점은 부모가 이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기도로 돕는 시간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예요. 금요기도회 후에는 부모들 간의 나눔 시간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와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민이엘·민엘리 학생은 “매주 즐겁게 친구, 동생들과 함께하니, 혼자 하던

암송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영어 암송이 재미있다는 것을 느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1년이었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 미취학 아동, 중학생 등으로 참여대상 확대 예정

영락 어와나는 참여 대상을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 등 더 다양한 연령대로 넓혀 나갈 구상을 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참여한 아이들은 영어 암송을 즐기며, 친구들과 신앙을 나누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양육자들은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나누었다. 앞으로도 영락 어와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나아 가며 많은 가족에게 더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남**

정리 김천경 기자

## 영락 어와나(Awana)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일 시 : 매주 금요일 19:30 ~ 21:30

[봄 학기] 2025. 3. 14 ~ 6. 27, [가을 학기] 2025. 9. 12 ~ 12. 12

장 소 : 50주년기념관 301호

내 용 : 영어 성경암송, 어와나 게임, 찬양, 컨테스트, 성경암송대회, 달란트 시장 등

문 의 : 국제예배부 (010-3020-1248)





## 내 부족한 입술을 복음 전하는 작은 무기로

### 전도훈련학교 2단계 수료... 감사의 시간 넘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내가 믿는 예수님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이 “교회 다니세요. 다니시면 좋아요”가 전부였던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정립된 무언가를 담고 싶어 시작한 ‘전도훈련학교’. 벌써 2단계 수료를 마치게 되어 감개무량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첫 훈련생 보내주시고... 중보기도 알게 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주께 향한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믿음의 훈련생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첫 훈련생 장요셉님!

내 훈련생과 어떻게하면 한마음으로 훈련을 함께 잘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문을 보내고,



김현정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간간히 암기 격려의 글과 나눔의 글을 보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한 찬양을 훈련생과 함께 나누는 경험을 통해, 한없이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이 점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2단계 훈련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채워주심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 함께 전도했던 분들을 위해, 전도대상자를 위해 한마음으로 중보기도하게 하심으로 중보기도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천국은 없다던 시아버지에 믿음의 씨앗 심어져

평소에 “천국은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못가!안가!”라고 말씀하신 제 시아버님께 복음을 전한 일을 잠시 나눌까 합니다.

“만일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질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가겠지”라고 대답하신 분입니다. 제 복음 전문을 들으시던 중에 대뜸 “목사 해야겠어~ 말 잘하네~” 참 당황스러웠

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질문드렸을 때, “안 받아. 못 받아!” 말씀하셔서 안타까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 성령님께서서는 눈물 어린 저의 개인 간증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선물을 받겠다고 입으로 고백하시도록 아버님의 맘을 만져주셨습니다. 들음에서 나는 믿음의 씨앗이 아버님 마음에 심어졌음을 믿기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전도훈련을 받았기에 아버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문을 암송할 수 있었고, 개인 간증도 적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저의 간증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작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훈련생과 함께 나갔던 군전도에서 만난 장병이 무교였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부모님에게 전해드리고 싶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전도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자주 경험하게 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천국이 없다는 사람, 선물이니 거저 받으라 해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듣지도 알지도 못해서 믿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사랑하시고 구원해주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각자의 삶에서 천국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축복들

우리 4그룹장님, 팀원들, 특히 나의 부족을 채워줬던 내 첫 훈련생 쟁요셉님, 그리고 모든 전도훈련 스태프분과 전도훈련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순종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남**



## 은혜의 80년 복음들고 비상하라!

# 2025상반기 전도(폭발)훈련학교 모집

<p><b>[훈련일정]</b></p> <p>화요팀   3.4(화) ~ 6.3(화) 오전 10시 20분 ~ 12시 30분 50주년기념관 4층</p> <p>토요팀   3.8(토) ~ 5.31(토) 오후 2시 ~ 4시 30분 봉사관 지하1층 예비실</p>	<p><b>[신청방법]</b> ※ QR코드 ※ 전도부사무실(기념관 607호)</p> <p><b>[신청기간]</b> 3월 4일(화)까지</p> <p><b>[신청문의]</b> 화요팀(010-3354-3835) 토요팀(010-7174-1566)</p>
---	---

## 소중한 현금, 온전히 주님 영광 위해 쓰이게

재정부는 건전한 교회재정 운용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업무를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 각 제직 부서의 예산집행 조정업무, 현금의 수금·계수 및 예금 등에 관한 자금 관리업무, 회계 관리업무 및 기타 대외 지원 등에 관한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 드리진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재정부에 맡겨진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가 재정을 관리함에 앞서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사이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우선해 재정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감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소통과 준비를 위해 3개 부서가 매년 회계 및 예산편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의 준수가 필요한 재정관리에 있어서 영락교회는 회계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 시간 지켜온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교회사역도 변화가 필요하듯이, 재정지출도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투자, 온라인 및 디지털 환경에 대한 투자,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을 위한 투

자 등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재정지출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 기준으로 재정을 지출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이 되는 올해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9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든 계획수행에 충분한 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현금이 소홀하게 쓰이지 않기를, 하나님이 영락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기도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오현택 강로  
재정부장  
서초교구

## 젊은 세대 영입, 의료선교 활력 더할 것



의료선교부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통한 선교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 내 타 제직부서와 연합하여 사역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교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증진하는 복지사역을 수행하고자 선교부로부터 독립된 제직부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장로 장립 후 첫 제직부서로 의료선교부를 맡게 된 저는 교회의 80주년 표어에 따라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는 의료선교부’를 부르짖으며, 올해 사역을 신년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영락교회 김춘자 협력선교사가 사역하시는 필리핀 카비테지역에서 50명의 단원(단장 정일형 안수집사)과 함께 해외의료선교에 참여하여 의료봉사 및 문화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올해의 의료선교부 중점사역으로는

첫째, 젊은 세대를 영입하여 함께함으로써 활기를 띄우는 부서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내 의료인 등록 주일, 영락 의료인의 밤 행사 및 청년부 의료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연합 의료봉사사역을 펼치고자 합니다.

둘째, 교회 내 타 부서와의 협력을 적극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유인에배부 및 유학생에배에 출석하는 교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시행, 산상기도회 기간 중 의무실 운영 및 청년부 하기선교봉사 시 의료

봉사 담당, 남선교회 해외선교 시 의료지원 등 각 부서의 교회 내 외 활동에서 요구하는 응급약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교인들을 위한 응급처치(CPR) 교육을 실시하여 교역자, 자원봉사부, 청년부원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셋째, 부서 내 적극적인 회원 관리 및 선교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회원들의 부서 활동 참여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참여 동기 유발 및 의료선교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따른 강연 및 토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팀별 모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정기모임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재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서로 협력할 때, 선교의 사명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만남**



이명춘 장로  
의료선교부장  
동대문·중앙교구



## 교우들 기쁨과 슬픔의 현장에 늘 함께



영락교회 교우들의 기쁨과 슬픔의 순간을 현장에서 함께하는 경조부에는 지도 목사님과 전도사님 포함 15명의 임원, 교구별 상례 및 혼례를 담당하는 총 253명의 봉사위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세월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쇠약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며, 그 영혼은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 여정이라 할 것입니다.

경조부의 주요 업무는 교구 교우들의 혼례와 상례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행정지원과 경조 봉사를 통해 우리 교회 신앙지도 원칙 중 하나인 '성서적 생활 윤리의 실천'과 '교우 간의 사랑 나눔'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교회 내에서 52건의 혼례 및 363건의 상례가 있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도 2024년 상례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우리 교회 혼례 및 상례는 교구 목사님의 집례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됩니다. 혼례는 매주 토요일 선교관과 본당에서 진행되며, 혼례 담당 임원과 봉사위원은 예식 진행 시 필요 사항을 준비하고 식

장의 안내를 담당하며, 새로운 가정 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경건한 예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상례 또한 교구 목사님의 집례와 교구 상례 봉사위원을 중심으로 슬픔을 당한 성도를 위로하며,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남녀 장례지도사 2명을 통해 무료 상담, 무료 입관(염)을 지원하고, 교회 차원에서 신뢰할 만한 장례용품 업체, 장의버스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성도들의 장례비용 절감을 돕고 있으며, 유자 격자에게는 영락동산 묘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조부에서는 구역장 및 상례, 혼례 봉사위원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연 1회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교우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각 교구의 혼례, 상례 봉사위원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라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만남**

이원상 장로  
경조부장  
중구·용산교구



## 만민의 기도처... 은혜 넘치는 곳으로



오래전 젊고 패기 넘치던 총각 시절 중등부 교사로 학생들과 기도원에 여러 번 올랐습니다. 그때 젊은 교사가 우연히 보았던 기도원 원장님은 할아버지셨는데, 너무 큰 어른으로 느껴져 멀리서 목례만 하고 지나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제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기도원장이 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묘합니다.

영락교회 교인이기에 영락기도원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실상은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저 겨울과 여름의 교회 학교 수련회, 봄이나 가을에 있었던 각 교구 친교의 날 모임, 일 년에 한 번 산상기도회 등 연례행사 장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5년 새해에 기도원장으로 섬기게 되어 직전 원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준비하다 보니, 우리 기도원이 단순한 행사 장소가 아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교회의 연간 행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6시 새벽예배, 10시 30분 오전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며,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회를 갖는 기도처입니다. 그 외에 일정이 비어 있는 기간에 타 교회나 우리 교회 각 부서에서 기도원 시설을 대관하여 기도회나 예배 모임을 합니다. 이렇게 일 년 내내 바쁘게 돌아가는 기도원이지만, 오전 5시부터 자정

까지 하나님을 찾아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개방한다는 점에서 당연하면서도 자부심을 품게 됩니다. 혹시 행사가 있어서 본당 기도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기도원 내 야외 기도처나 기타 허락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기도원 특성상 예배구성원이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의 성도가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타 교회 분들이 자체적으로 찬양팀과 반주팀을 구성하여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연합된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도 기대해봅니다.

서울 시내에 그것도 국립공원 내에 넓고 아름다운 공간을 영락교회 기도원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기도원 섬김 사역을 부족한 종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으며 감사가 넘치는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고자 합니다. **만남**

장덕권 장로  
영락기도원장  
노원교구





2025 해외의료선교  
필리핀 카비테

## 청년 의료인 대거 참여... 헌신 고백

### 51명이 한 몸같이... 3박 5일 구슬땀

작년 12월 초에 의료선교부 차장으로 요청받았습니다. 저와 의료분야는 전혀 연관이 없기에 부서에 누가 될까 두려워서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러한 생각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나를 세워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필리핀의료선교단장을 맡아 단원 50명과 함께 3박 5일 (1월 27~31일) 일정으로 필리핀 카비테 트레세 머티레스에 위치한 World Mission Seminary(대표 김춘자 선교사)에 다녀왔습니다. 대규모 인원이라서 제일 중점을 두고 기도했던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배려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51명의 단원은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각자 맡은 분야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염려도 기우였습니다. 떠나는 날에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도, 마지막 날 현지에 온종일 비가 온다는 실시간 일기예보도 그냥 예보뿐이었습니다. 문화사역팀이 넓은 들에서 뜨거운 햇살을 안고 온종일 봉사해야 한다는 걱정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동과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의료선교부는 2023년에도 필리핀 카비테로 의료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박홍준 장로님의 수술 집도로 치유함을 받은 자매가 있었는데, 깨끗해진 얼굴과 환한 미소로 이번 봉사 현장에 자원하여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은 의료선교봉사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 준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정일형 안수집사  
동대문·종량교구  
의료선교부 차장  
2025 필리핀의료선교단장



### 1,221건 진료… K컬처·울동 등 문화사역 곁들여

의료선교봉사는 진료사역과 문화사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유방외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였으며, 총진료 건수는 1,221건(수술 38건), 환자는 958명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청년 의료인이 많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앞으로의 헌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문화사역은 복음 팜팡~ 팝콘, 아트풍선교실, 예수님 사랑 티셔츠 배부, 우리나라 고궁 배경판에서 한복 입고 사진 촬영, 캐리커처 코너, 한국어 수화 찬양, 울동교실 등으로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33여 년 필리핀 카비테에서 복음과 사랑을 펼치시는 김춘자 선교사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 준비 과정부터 마칠 때까지 중보기도로 함께해주시고,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한 후원금과 헌물로 채워주신 영락교회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보다 주님의 힘쓰심을 기도하게 돼

저는 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집사님 옆에서 보조하면서 소견을 통역하시는 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간간이 초음파를 직접 하면서 진료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현지 의료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안타까웠고, 더 많은 것으로 돕고 싶었지만, 한계를 느껴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온,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선뜻 맡기면서 진료 소견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며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진료실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현지 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힘쓰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쉴 새 없이 오시는 환자들로 힘들 수 있는데, 오히려 웃으면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진료하시던 진료사역자들의 모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남**

청년 의사  
권지민 성도  
청년회 공약소리



## "우리는 믿음으로 비상하는 학원선교사"



### 영락 기독교사대회, 영락·대광·보성학원 330여 명 참석

2025년 영락 기독교사대회가 영락교회 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와 영락학원, 대광학원, 보성학원 주관으로 2월 20일 (목)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열렸다.

'기독교사여 비상하라(출애굽기 3:5~10)'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영락학원 3개교(영락중학교, 영락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 대광학원 3개교(대광초등학교, 대광중

학교, 대광고등학교), 보성학원 2개교(보성여중, 보성여고) 등 8개교 교사와 교직원 3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기독교 학교 교사로서의 고충을 위로하고 "신앙을 물려주는 사명자이자 학원선교사라는 자부심을 품고 2025년에도 믿음으로 달려가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축원했다.



이찬희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선교부 학원선교팀장

### 문화선교팀, 뮤지컬 <아름다운 초대> 공연 큰 호응

박용준 목사(국내, 학원, 문화선교)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김진우 목사(선교부 전담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서 서상현 장로의 인사말과 김순미 장로(선임 장로)의 환영사, 3개



학교법인의 학교장 인사 및 각 학교 소개가 있었다.

오찬 후 진행된 2부 프로그램에서는 신형섭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과)의 특강을 통해 기독교사이자 학원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고취했고, 최환호 목사(기독교 행사 전문 MC)의 레크리에이션으로 화합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신형섭 교수의 특강과 최환호 목사의 레크리에이션 사이에 영락교회 선교부 문화선교팀이 준비한 뮤지컬 <아름다운 초대>를 공연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를 참고하여 쓴 뮤지컬인 <아름다운 초대>는 이날의 행사를 위해 문화선교팀에서 20분 분량으로 축약하여 공연했으며, 학원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기독 교사와 교직원에게 바쁘고 힘든 일상에서 행복과 고통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하여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영락교회는 다음세대를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

로 양성하기 위해 여러 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학원선교부는 영락학원, 대광학원, 보성학원과 함께 학원선교를 통한 기독교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학교를 세우기 위해 매년 2월 '영락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학원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또한 영락 기독교사대회를 통해 기독교사들이 자신을 학교로 보낸 학원선교사로 깨닫고, 기독교사가 지녀야 할 열정과 덕목을 훈련하며, 영락·대광·보성학원의 교직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교사들을 학원선교의 주역으로 온전히 세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영락교회 선교부 학원선교팀은 '2025년 영락 기독교사대회'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가 학원선교를 위해, 그리고 학원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구성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소망했다. **만남**

# 뉴코리아국제학교를 아시나요? New Korea Global Institute



## 탈북 청년들의 신앙·정착 돕는 영락의 교육기관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치열한 삶의 현장과 학업을 오가는 가운데 많이 위축된 우리 자유인 학생들에게, 교회는 아직 익숙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뉴코리아국제학교는 탈북 자유인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자유대한민국 땅에 잘 정착하며, 더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서 자기의 꿈을 펼쳐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영락교회에 세워진 교육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뉴코리아국제학교에서는 많은 선생님이 자유인 청년들에게 영어, 국어, 논술, 수학 등의 학업을 가르쳐 주고, 특별활동과 수련회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우며 섬기고 있습니다.

## “청년의 때에 하나님 기억하자” 겨울수련회

우리 자유인 청년들에게는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복음으로 통일된 자유대한민국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

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뉴코리아국제학교는 지난 겨울수련회(2월 1일~2월 2일)에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전도서 12:1)를 주제로, 바쁜 학업 가운데 때때로 소홀했던 각자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말씀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우리 뉴코리아국제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운 준비과정을 해결해 주셨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끝까지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위해 많이 애써주신 뉴코리아국제학교 임원 여러분, 선생님, 전도사님, 그리고 알게 모르게 후원과 봉사를 해주신 많은 분이 정성 모아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북한선교부 김형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신 말씀(사무엘상 17:34~37)으로 겨울수련회 참석자 모두 성령의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자유인 청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목사님의 말씀과 이를 위한 기도는 모두의 마음에 깊은 신앙 메시지로 심어졌습니다.

정성훈 전도사님께서도 수련회 기간 중 성경 묵상(전도서 3:19, 12:1)과 말씀을 통해, '사람은 결국 영원에 연결되어야 허무감에서 탈출할 수 있으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허무를 넘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 새 학기 맞아 새로운 도약 준비

성령 충만함으로 즐거운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뉴코리아국제학교 모든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

도합니다.

뉴코리아국제학교는 새 학기 개강을 맞아 교사 모집과 아울러 학생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께서 많이 와주시고, 또 학생도 더 많이 채워져 하나님을 믿는 신앙교육과 좋은 수업의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New Korea Global Institute : 뉴코리아국제학교)의 궁극적 소망은 복음으로 통일된 새로운 대한민국(New Korea)을 이끌어 나갈 국제적(Global)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기관(Institute)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통일 한반도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 가운데 크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남**

이나영 성도\_자유인예배부, 뉴코리아국제학교

## 하나님 나라 학부형 된 기분이에요

### 유년부 예비초등생 가족입학식 열려

2월 15일, 주일을 하루 앞두고 유년부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가족초청예배가 있다는 안내와 함께 '가족 입학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학교에 가지고 다닐 책가방을 가지고 오라는 내용이었다. 매우 생소한 명칭의 행사였고 준비물이었기에 궁금함과 설렘이 공존했다. 2월 16일 주일이 되었고 유년 2부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예비)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부모로 50주년기념관 3층 유년부실에서 가족초청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기쁨과 감사로 가족초청예배를 드린 후, 궁금했던 '가족 입학식'이 신주현 목사님의 인도하에 진행되었다. 이는 2025년 유년부에 처음 시행되는 행사라고 하셨다. "아이들은 이제 '학생'이 되고, 부모님들은 '학부형'이 되십니다" 가족 입학식을 시작하는 목사님의 첫 말씀이 늘 아이를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져던 나에게 '아! 아이만 입학 하는 것이 아닌 부모도 학부형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다!' 생각이 들며, 왜 가족 입학식이라 했는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학교(입학)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고 준비하는 '책가방'이 세상에 나가기 전 함께 기도로 먼저 성령 하나님의

보혈을 덮어 정결함을 덧입혀 주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태복음 5:14) 문구의 키팅을 책가방에 달아 주었다. 너 무나도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아이의 머리와 어깨에 아빠, 엄마의 손을 얹어 축복기도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겨드림을 선포하였다. 성령 충만함이 손끝에서 느껴지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 1학년 가족이 2학년 가족을 축복송으로 축복하고, 이어서 2학년 가족이 1학년 가족을 축복송으로 축복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마무리한 후 반별 모임을 갖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목사님은 예배의 중요성과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마지막으로 '2025 말씀 선포 캘린더'를 준비해 주셨는데, 매달 정해진 말씀을 아이를 비롯해서 부모들도 매일 큰소리로 선포하고, 말씀 선포 후 집을 나서길 권면하셨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없이 구하는 것임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다.

가족 입학식을 통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하늘나라학교의 입학식을 함께한 것이었다. 귀한 시간을 준비해 주신 신주현 목사님, 유년부 이빛나 전도사님, 강귀용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선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남**



변주은 성도  
유년2부 김주찬양 어머니  
안양·수원교구



## 흘려보낸 사랑, 되돌아와 넘치네

### 감사로 넘친 중등부 겨울수련회 헬퍼 사역

‘흐르네~ 흐르네, 온 교회 위에 주의 영광이 흐르네. 흐르네~ 흐르네, 온 성도 향해 주의 성령이 흐르네’

어노인팅의 ‘흐르네’라는 CCM 가사 일부입니다. 이 가사처럼 저에게 부여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라면 감사함으로 섬기자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2025 중등부 겨울수련회 헬퍼 사역의 경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 자신없던 내게 “선생님~” 하며 찾아와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을 만났던 처음 시작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의 중학생 시절이 엇그제 같아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도 알 수 없는 세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해도 내가 건넨 말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 휴대폰에 비해 참 지루했고, 그들의 관심사와

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낯설과 어색함을 풀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자신감을 떨어뜨려, 이곳에서 사랑을 전하기엔 내가 너무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걱정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들이 무색하게도 수련원에 도착한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 하며 찾아오기 일쑤였고, 그렇게 저를 찾는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 어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겠지만, 처음 본 나를 거리낌 없이 선생님으로 바라봐 주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선생님으로 세워질 수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마땅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겠다는 당찬 포부와는 달리,

흘려보낸 사랑이 되려 돌아와 나를 넘치게 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 기원

2025년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들었던 대학부를 떠나 청년부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년부에서는 취업과 직장, 결혼과 자녀와 같은 선택이 학생 때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왔고, 저의 주된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신 말씀이 'The blessing,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제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지라 삶 속에서 불안이 찾아오곤 합니다. '얼마나 원하실까? 정말 이런 내 모습을 보시고도 원하실까?' 하는 생각에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서 같은 말씀을 받은 중등부 아이들을 보며 말씀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던 제 마음은 사라지고, 이 참된 말씀을 아이들이 진실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소망이 피어났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알지만 방황

했을 때도, 알아가길 원했을 때도 하나님께선 항상 축복하시며 함께해주신 은혜의 경험이 있기에, 중등부 아이들보다 조금 앞선 자 되어 먼저 경험했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 쓸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런 자격 없이 받은 은혜임에도 다른 영혼을 위해 베풀 수 있고, 베풀 은혜가 또 다시 나에게 흘러들어와 나에게 믿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중등부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기엔 2박 3일이라는 시간은 참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한 수련회는 짧고 부족했지만, 전하고자 하는 사랑과 은혜가 흐르고 흘러 새로운 세대에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며 수많은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길 기도합니다.

윤태수 성도  
청년회 광야소리



## 남의 시선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위로

### 방향 중 참석한 중등부 겨울수련회

저는 수련회에 가기 전에는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있을 땐 늘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여디디야 찬양팀을

하면서 저 자신이 멋져 보이려고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학업, 미래만 생각하며 세상 따라 점점 변해갔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도 잘 살 수 있을 거 같았습니다. 그럴



수룩 마음은 텅 빈 것 같았고 이게 맞는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수련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구들과 놀려고 수련회에 간 것이었는데, 수련회에서의 경험들이 제 신앙심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겨울수련회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했습니다. 그 무렵 “내가 잘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까?”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 통성기도·찬양하며 하나님의 용서 느껴

그러다가 소리 내 기도했습니다. 찬양할 때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배드릴 때도 남이 뭐라고 생각할까? 남의 시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할 때 예뻐 보이거나 멋져 보이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

지고 싶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나 나의 죄를 위해 여러 가지를 행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을 때, 그동안 느껴왔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제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에도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수련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겐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드려야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위로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만남**



정재아  
중등부



## 사랑 넘치는, 조금은 '나쁜(?) 선생님'

### 사랑부 교사로 섬김 이끈 뮤지컬

청년회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신앙생활에 대해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그만 다녀야 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들던 찬양도 듣기 싫고 멜로디만 나와도 짜증이 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던 중에 뮤지컬을 보게 되었습니다. 뮤지컬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표지가 독특해서 전날 예매해서 보러 갔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한센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발달장애인에 관심이 생겨 사랑부를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참관해 보니 계속 지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랑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손위혁 성도  
사랑부 교사  
청년회

### 처음엔 학생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기

그렇게 처음 교사로 섬기며 학생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부모님께서 몇 번이고 사랑부에 가고 해도 오지 않다가 어떤 결심이 섰는지 사랑부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이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 탓에 자꾸 자려고 하고, 계속 허기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 사항을 미리 들었음에도 배정받은 학생을 만났을 때 긴장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과 만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모든 것이 걱정되었고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의사소통은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 했지만, 역시나 학생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는 무조건 잘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이 침을 흘리면 닦아주고, 배가 고프다면 간식을 주며, 예배 시간에 졸다가 눈이 마주치면 목사님과 전도사님 몰래 자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적응을 못 해서 사랑

부를 떠나면 어찌지'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것이 제가 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을 무렵, 사랑부 교사 자체 교육을 통해 제 담당 학생의 유형을 찾았습니다. 이후 그것에 맞춰 학생을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이젠 예배시간 즐거나 떠들면 엄한 선생님

8개월이 지난 지금, 조금은 나쁜 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이 코를 흘리거나 침을 흘리면 닦아주는 것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3분마다 간식을 먹고 싶다고 저에게 물어볼 때마다 더 묻지 않도록 직접 보여주거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먹고 싶어 할 때마다 먹게 했던 간식도 부모님께 말씀드려 양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예배 시간에 즐거나 주변 소음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앞을 보고 집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해 몇 번을 물어서 겨우 의사소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앞의 몇 마디만 들어도 무엇을 궁금해하고 불편해하는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 영락기도원으로 첫 겨울수련회 행복한 기억뿐

2월 8~9일 사랑부에서 영락기도원으로 겨울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던 저에게는 첫 수련회

였는데, 제가 담당한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 주일 만 나던 좁은 사랑부실이 아닌 곳에서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고, 학생도 행복해했습니다. 썰매도 타고 어묵도 먹으며, 또 찬양곡을 직접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찬양하고 춤추며 마을 친구들과 맛있는 간식을 먹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여름수련회도 가고 싶다는 반응을 보니,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맡겨주신 학생과 제가 서로 보듬으며 마음이 연결되고 서로 따뜻함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을 통해 느끼고 배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주일 사랑부가 잘 움직이기 위해 사랑부 모든 구성원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학생을 맡아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는 선생님들, 더 잘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다 의도치 않게 생긴 마음의 생채기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또한 언젠가 떠나야 할 시간이 오겠지만, 그전까지 최선을 다해 제가 맡은 학생을 돌보고, 제가 맡은 학생이 저와 함께 보낸 시간이 행복했다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 소중한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남**



##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계획

\* 벗님 : 대학부 내 교우를 부르는 호칭

여러분은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경험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게 실은 하나님의 은혜

캄보디아에 도착한 선교팀은 설렘과 걱정을 안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는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을을 둘러볼 때는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과 열악한 환경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급식사역을 할 때는 일상적인 식사 해결도 변변치 못할 만큼 열악한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며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환경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노방전도에 대해 부정적이던 제가 직접 노방전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반기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고,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도뿐이라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길거리 전도 사역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중보기도의 은혜, 감사,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동참하여 직접 체험하고 그들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도 했습니다. 홈스테이를 통해 불편한 환경을 직접 경험하면서 아무런 불평 없이 일상으로 여기는 그들을 보며 한없이 반성하는 한편,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 불평하기도 했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더욱 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도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눈이 마주치거나 웃기가 스치기만 해도 손을 잡고 안기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언제나 조용히 저를 기다리던 라희라는 8살 어린아이가 생각납니다. 마지막 날, 눈물 한 방울 없이 덤덤하게 이별을 준비하던 그 아이의 성숙한 모습은 제 마음에 계속 아픔과 미안함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캄보디아 땅을



선교지 아이와 성경학교에 참여 중

직접 밟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를 통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역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성진 벗님 \_ 대학부 엘리야마을

## 나눔 속에서 깨달은 사랑

### 사랑 나눠주러 갔는데... 먼저 받은 사람은 나였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보았던 선교, 그저 부모님 따라가는 선교, 익숙한 사역 중 하나로만 생각했는데, 이번 선교는 달랐다.

나는 사랑을 나눠주러 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선교지의 아이들은 나를 격하게 반갑게 맞아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주며 사랑을 나눠 주었다. 간식을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 눈에는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아끼고 싶은 소중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기쁘게 내밀며 나누는 그 모습이 내 마음을 울렸다. 사랑은 내가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넘치고 있었다.

### 다섯 살 아이와 젊은 여성 통해 일하신 하나님

특히 다섯 살 응언이라는 아이가 기억에 남는다. 어디에서든 어떤 순간이든 “보배!” 하며 달려와 반겨주던 아이. 이동하는 차를 향해 끝까지 달려와 넘어지더라도 손을 흔들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길거리에 나섰을 때 “집이 어디야?”라는 내 질문에, 아이는 집인지도 모를 공간을 가리키며

“여기!”라고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아이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깊이 느꼈다. 소책자를 들고 길거리에서 만난 많은 사람 중에 한 젊은 여성분이 기억난다. 나는 네 장짜리 소책자를 건네며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전도카드를 활용해 길거리 전도사역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의 질문에 그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려도 되느냐고 묻자,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나의 기도가 한 문장 한 문장 통역되는 중에도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계획하셨고,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확신했기에, 그도 분명히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을 느꼈으리라 믿는다.

또한, 선교지에서 아이들이 내 옷을 털어주던 순간도 잊을 수 없다. 먼저 묻은 내 옷을 작은 손으로 털어주며 밝게 웃던 아이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리고

함께한 선교팀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큰 은혜를 경험했다. 서로가 경험한 감동과 깨달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 선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발견하는 시간

선교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귀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아이들 안에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배웠다. 선교는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두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류보배 벗님 \_ 대학부 엘리야마을

##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 확신

안녕하세요. 고등부 김미주입니다.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아포스톨로스 선교팀 소속으로 캄보디아 포이펏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포스톨로스’란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캄보디아로 보내시는 것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마냥 제 욕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이펏에 오고 아이들을 만나자마자 그런 생각은 저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다는 가사가 떠오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연약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의

심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통해, 선교팀원들을 통해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받은 사랑 배로 주고 오자”... 애초에 지킬 수 없었던 것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저는 딱 하나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 기간에 제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기도 한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을 그곳에 배로 주고 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 이길 수 없듯, 저는 포이펏에서 제가 주는 사랑의 몇 백배가 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인한 포이펫의 사흘

첫째 날에는 그날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홈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세 자매(릴리, 리나, 리사)의 집에서 홈스테이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겨울은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몇몇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홈스테이 이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겨울밤 날씨는 꽤 사나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분들이 저희를 배려하기 위함에서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집에 선풍기를 두 대나 틀어주셨습니다.

자기 직전에 하나는 끄고 잤는데, 다른 하나는 전원을 끄지 못한 채 릴리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평소 잠에서 잘 깨지 않는데도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운데 릴리는 얼마나 추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 반, 추위를 이겨내고 싶은 마음 반으로 옆에 누워있는 릴리를 살짝 안았습니다. 릴리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제 쪽으로 돌려 손을 겹쳐 잡아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정말 너무나도 따뜻해서 예수님께서 릴리를 통해 나를 안아주려 오셨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성경학교 이후,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의 말을 캄보디아어로 번역해서 직접 말하며 전도했습니다. 부족한 발음 탓에 알아듣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차분히 들어주고 제 말을 따라 말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외지인이 갑자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거절할 법도 한데, 거절은커녕 자기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주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는 선교팀원들의 눈을 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눈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저희를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포이펫에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학교를 마친 후 아이들과 찰칵

### 빈곤의 땅에 뿌린 꿈... 열심히 공부해 다시 갈 것

저희 아포스톨로스 선교팀의 주제는 '천국'이고,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포이펫의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단지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보화처럼 귀한 곳이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좋다는 그저 가벼운 마음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삶,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단지 가벼운 이유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듣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고 미안했습니다. 포이펫 선교의 목표 중 하나는 그곳의 아이들이 빈민촌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이펫에는 교육을 담당할 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에서



현지 스텝과 길거리 전도사역

경험한 은혜와 사랑이 내가 선교하고 왔다고 착각하게 한다고, 내가 선교지에 와서 바꾼 것은 없는데 선교했다고 생각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캄보디아에 갈 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평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었는데,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동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받은 사랑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나누어 살면서 끝나지 않은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로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학생 \_ 고등부

##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 예수님의 사랑 고민하던 중 단기선교팀 합류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해 무작정 싫어하는 친구에게서 사랑을 찾으려고도 했고, 처음 보는 친구에게도 최대한 잘해주려고도 해봤지만, 제가 느낀 건 예수님의 사랑보다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대한 서운함과 후회뿐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부모님의 권유로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아포스톨로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 준비기간 때 친한 사람이라고는 같은 찬양대 소속인 형뿐이었기에 어떻게 적응할지 또 대학부 형, 누나들과 어떻게 친해질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지인 캄보디아 포이펏 빈민가가 위험하면 어떡하지?' '약취에 적응을 못 하면 어떡하지?'와 같이 선교지의 아이들 보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 현지 아이들의 따뜻한 미소에 온갖 걱정 날아가

그렇게 걱정과 함께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프놈펜에서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있는 포이펏으로 가는 동안 의료팀장 누나와 20살 대학부 형 두 명과 매우 친해지게 되었어요. 형들과 누나는 사역에 대한 기대를 나누었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온갖 제 걱정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포이펏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은 완벽히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선교지는 집들과 쓰레기장이 같이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집은 모두 철판과 나무로 간신히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열악한 환경이 제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즐거워 보이는 아이들의 미소와 저를 안아주는 따뜻한 체온이 순간 저의 모든 두려움을 덮어버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저를 안아주려고 맨발로 쓰레기 더미 위를 뛰어오고,

어떤 아이들은 제 팔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날이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반기듯 저희를 맞아 준 아이들이 있었기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날 오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캄보디아어를 할 줄 몰라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조차도 못 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호텔에서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예쁘다, 멋지다' 등 하고 싶었던 말들을 번역기로 돌려가며 정리하고 암기했어요.

두 번째는 제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체감했다는 것이었어요. 온종일 아이들과 뛰어놀았고 한 번에 아이 두세 명을 몸에 태우고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 근육통이 생기고 피곤했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도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놀기

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몸이 분명 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아이들과 헤어질 때는 더 놀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저를 어려워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었어요. 아이들과 달리 저는 호텔에서 자고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었기에 아이들이 저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은 전혀 벽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지내는 사흘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었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선교지에 있는 동안은 제가 천국에 있는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 원가를 바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님을 깨달아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친해진 형누나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아이들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그 마음을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 모두 "이곳에 체류하고 싶다" "꼭 다음 단기선교 때도 함께 하자" 약속하며 선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선교를 통해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무언가를 바라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명예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도 틀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캄보디아 포이펫 빈민촌 아이들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방도윤 학생 \_ 고등부

## 사랑 낚는 어부... 말씀이 삶의 비전으로

###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 낚는 어부(Fishers of love)라는 문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1월 26일, 김운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온 다음에는 잠깐 기도한 후 휴식을 즐기던 저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와 달리 집에 온 후 설교 말씀이 한참 제 안에 머물러, 이 불타는 무언가를 표출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자 마음먹었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성화를 찾던 중, 라파엘의 태피스트리가 원작인 그림을 인터넷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날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7~20절과는 다른 성경 구절을 묘사한 그림이지만, 제가 받은 영감을 곱씹고 표출하기엔 이만한 그림이 없었습니다. 정말 집중해 두 시간 만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이렇게 성경을 탐구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니 참 좋았습니다.

### 나는 낚아 올려짐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이날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물고기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 배를 채우듯, 사람도 수단으로 사용되는 존재

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물고기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끼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물고기처럼 잡혀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건져 올려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제게도 과연 그런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낚여 올려짐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예배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베풀고 있는가? 등 질문을 계속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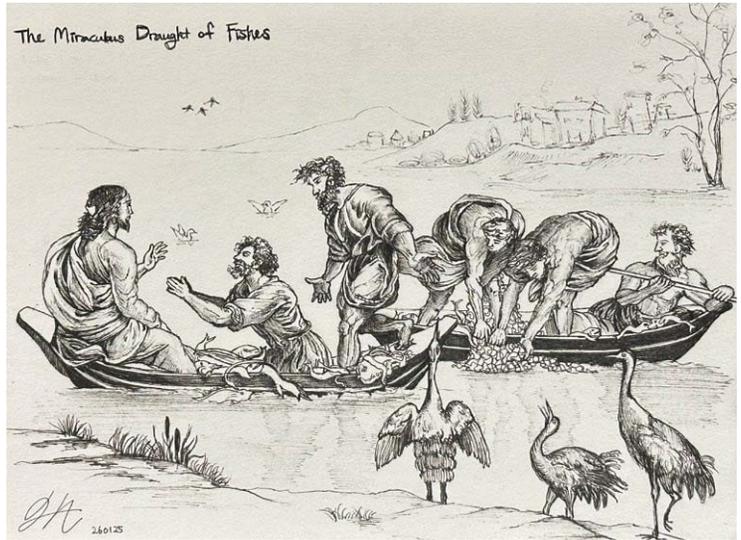
저는 2024년 영락교회에 처음 와서 대학부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에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끌어주셨던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작년 대학부의 표어가 'Welcome Home'이었는데, 귀국도 하고 이사도 하며 환경이 바뀌어 혼란스러웠던 제게 영락교회는 집이 되어주었습니다. 대학부를 이끌어주시는 방덕중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예배 자리에서 든든히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언제 돌아와도 언제나 저를 맞이해주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후 대학졸업과 취업이라는 또 다른 혼란스러운 순간들을 헤쳐나갈 때, 웰컴마을과 우리 가족(하나, 준호, 혜림) 벗님들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각자의 삶에서 느꼈던 감사함과 어려움을 나누고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누며 같이 성장하는, 그렇게 사랑이 넘쳤던 한 해를 보았습니다. 현재 저는 문화예술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김소현 벗님  
대학부 모세마을



라파엘의 그림(왼쪽)을 원본으로  
필자가 그린 그림



것이 목표인 제게 하나님의 사랑은 참 감사하고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 문화예술계 낚아 올리는 사랑의 어부 소망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필수적 욕구를 충족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의식주가 충족된 이후 찾는, 어쩌면 잉여적인 생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맛있는 것, 몸을 보호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보기 좋은 것, 잠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더 멋진 곳을 원하는 우리입니다. 많은 사람은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추구하는 것들을 대개 문화예술의 영역 안에서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에 집중하다 보면 가진 것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제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더는 경쟁적으로 소비하지 않고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그 자체를 감사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가 속한 곳에서 어떤 어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십자가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문화예술에서 얻을 수 있는 감각적이고 단편적인 아름다움을 찬양하기보다, 십자가에 담긴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네 삶에서 경험하는 가지각색의 갈등, 혼란,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건져 올리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부활, 치유, 회복, 그리고 사랑이라는 가치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타락한 것들이 일반적인 것으로 용인되는 세상에서, 그것들이 옳지 않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화예술계를 낚아 올리는 사랑의 어부가 되어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 당신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 우릴 위해 기도하시던 교회 선생님들과의 추억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1부를 섬기고 있는 청년 김찬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적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제가 어렸을 적 만났던 선생님들을 기억해보면, 한 번에 생각나는 선생님은 몇 안 되세요. 그리고 기억나는 이유도 선생님의 수업 내용보다 선생님과 추억 때문에 기억하지요. 만날 때마다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셨던 어린이집 선생님, 늘 공주왕자라고 불러주셨던 중1 담임선생님, 저의 떨어진 운동화 밑창을 직접 접착제로 붙여주셨던 고3 담임선생님까지, 가르쳐주신 내용보다는 선생님과 추억과 감정이 지금까지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들도 가르쳐주셨던 성경 이야기보다는 선생님이 손수 떠주신 목도리 선물과 겨울만 되면 데리고 가주셨던 눈썰매장,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셨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 매주 한번씩 아이들과 전화만남... 하나님 사랑 전혜

이제는 제가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2023년에 교사 교육을 받아서 2024년부터 소년 1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사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캄보디아 '포이펫'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사가 되겠다' 다짐도 했습니다. 교사의 첫걸음으로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

이들과 친해지는 것이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야 열린 마음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과 자주 만나자!'라는 생각에 '전화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전화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전화하여 일과 및 그 주 말씀을 나누고 아이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이예요. 사실, 매주 실천하지 못했지만 '전화 만남'을 통해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 되었어요. 또한, 아이들을 향한 마음도 더 커졌답니다.

더 큰 은혜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문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제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제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과 위로의 마음을 주셔서 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예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이들에게는 제가 어떤 선생님이로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남아 계시는 저의 어릴 적 선생님들처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화 만남을 이어가 봅니다. **만남**



김찬미 성도  
청년회 총무  
모리아  
소년1부 교사



#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이월

새가정



1

1 박태상, 김정은  
3 신진호(신승원, 지예은)

새아기



2

2 김윤아(김정호, 박미숙)  
4 박은유(박재영, 빈요안나)



3



4

# 봉사, 세상과 구별된 기쁨 온가족 함께하니 축복 넘쳐

- 류승호 집사·이은희 권사 가족



2025년을 맞이하여 『만남』에서는 영락교회가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성도의 내적 성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교회 내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류승호 집사, 이은희 권사 가족을 만나 보았습니다.

## 오래간만입니다. 6년 전 자원봉사 참여 가족 인터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류승호 집사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희 가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 12월에 안수집사로, 아내 이은희 집사가 올 1월에 권사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교통자원봉사를 하던 큰아들 화평이는 다음 달에 군에 들어갑니다. 둘째 딸이 지난해 재수를 마치고 합격을 기다리고 있어 교통자원봉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권유 중입니다. 셋째 아들은 토요일 청소자원봉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집사님께서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야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류승호 집사 제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어디서든 항상 음식을 차리시고 설거지를 하시고 다른 분의 시중을 들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대접을 받아 보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렇게 저희를 키워주신 모습이 선해서 글을 쓰는 지금도 죄송

할 뿐입니다. 저는 세상과 구별된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평생의 모습에서 배웠습니다.

## 집사님은 배식봉사, 권사님은 청소봉사, 아드님은 교통봉사를 함께하십니다. 가족들이 잘 따라 주시던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았죠.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대로 먼저 그냥 봉사를 실천하며, 시간을 두고 권유해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아이들도 그렇게 함께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 교통봉사는 한겨울 혹은 한여름에 특히 힘들 텐데 어떡셨나요? 힘든 점을 말씀해 주세요!

류승호 집사 봉사는 당연히 힘들다고 가르칩니다. 힘들지 않고 재미있는 일을 하려면 놀이동산이나 문화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봉사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 힘들지만, 대신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이 아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니 그것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류화평 주차봉사를 하면서 안내하는 대로 성도님들이



부부는 배식, 청소 일손 돕고  
세 자녀도 교통·주말 봉사 동참

내가 힘들수록 더 큰 은혜 주셔서  
천국가정 원하면 자원봉사부 노크

따라주지 않으실 때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 사모님과 (권사) 어떤 만남으로, 결혼하게 되셨나요?

**류승호 집사** 청년부 하기 봉사에서 부팀장과 전도조장으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이렇게 오래 함께하는 사이가 될 줄 몰랐습니다.

####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즐거웠던 일, 기억에 남는 업무가 있으신가요?

**류승호 집사** 어떤 권사님이 몸살에도 사람들에게 감기 옮기면 안 된다고 먼 길 일찍 오셔서 먼저 청소하고 가셨다고 문자를 남기셨는데, 정말 감사했고 존경하는 마음에 더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은희 권사** 배식봉사나 교회환경봉사 모두 제가 그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불러 주시고 사용해주시고 다른 분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것, 그 것이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그 은혜를 제가 '알고 있다'가 축복이어서 행복합니다.

**류화평** 봉사하면서 종종 교회 분들의 "고생하십니다" 한마디가 무척 큰 위로가 되었고, 종종 주시는 간식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 자녀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원하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분들께 조언하신다면...

**류승호 집사** '봉사'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고 '자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면 그곳은 천국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실까요. 가정이 천국이 되어 웃음이 넘치는 곳에서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자원봉사부를 찾아주세요. 곳곳에서 천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거든요. **만남**

취재 김대준 기자

.....  
\* 「만남」은 2대, 3대, 4대가 함께 영락교회 교인인 가족을 찾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홍보출판부로 연락(02-2280-0197) 주시길 바랍니다.



## 거룩한 부르심... 기도하는 제2남선교회

### 새벽을 깨우는 자 되리라... 2025년은 기도의 해로

2025년, 영락교회 제2남선교회는 '은혜의 80년,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표어를 품은 기도로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영락교회가 첫돌을 맞은 지 80년, 이 길을 걸어 온 선배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신앙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락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정을 이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되새기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을



이진하 안수집사  
노원교구  
제2남선교회 해외선교부회장

바탕으로 제2남선교회는 2025년을 '기도의 해'로 삼기로 결단했습니다.

### 하나님 나라의 확장 위한 릴레이 간구

1월을 '기도드림의 달'로 결단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매일 새벽기도회로 새날을 출발한 제2남선교회는 금요철야기도회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경건회와 기도회로 시작한 신년기도회 이후에도 우리의 기도 열망은 점차 증대하여 매주 기도와 헌신의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릴레이 기도는 각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2남선교회 회장단의 신실한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자 했던 회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년기도회에서 ‘끝까지 힘쓸 일’(디모데후서 4:1~5) 주제로 말씀을 전하신 김은성 목사님은 “오늘날 기독교인과 교회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환경에도 끝까지 힘써 본분을 다하자”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이천 년 전 목숨을 걸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신앙의 본분에 힘쓰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박용준 목사님이 인도한 기도회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제2남선교회가 진행할 ‘소그룹 모임 준비 워크숍’ ‘국내전도여행(5월 예정)’ ‘해외선교사역(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예정)’을 위해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특히 탄자니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기를 간구하며,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 신년기도회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25년’을 다짐하며 출발했습니다. 영광교회의 80년을 맞이하여, 제2남선교회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적극 참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뜻에 따라, 2025년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만남**

## 기도와 헌신의 화신, 제3여전도회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마르다처럼 부지런히 섬기는 기도와 헌신의 화신, 영락의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1945년 이듬해에 조직된 부인전도회(여전도회)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제1, 2, 3, 4여전도회로 구분해 18개 각 교구에 여전도회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여전도회의 다양한 사역과 올해의 포부를 7교구(서대문·은평) 3여전도회 전임과 신임 지회장을 통해 들어봅니다.



### 43~52세 주축... 해외선교 물심양면 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2023~2024년 3여전도회 서대문·은평 지회장으로 섬긴 김영희 집사입니다. 2년간 섬기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시 새겨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만 43~52세 회원이 주축인 3여전도회는 모든 여건상 가장 활발한 섬김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사랑 힘입어 하나 된 우리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 하러  
구원의 깃발 높이 쳐들고서  
온 누리 못 백성 구원해 내려”

이것은 3여전도회가 가사 중 일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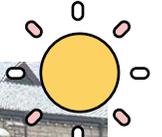
선교회보 사진에서 알 수 있듯, 대표 사명이 ‘해외선교’인 3여전도회는 각 교구에 배정된 선교사와 사역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3여전도회를

대표하는 중앙회 임원들은 선교사님들과의 소통에 힘쓰며 선교지도 방문하고,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 식수 문제, 예배당 건립 등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자부심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3여전도회 회원들은 각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회원들과 정기적인 소모임을 통해 함께 기도와 교제로 신앙을 키워가며, 평생대학교와 산상기도회 배식, 교구 친교의 날, 만남 주일, 선교대회 바자 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연합해 주최하고 봉사로 섬기며, 교회의 지체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4·50대 여성의 재취업률이 높아져, 현재 3여전도회의 70%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라고 해도 여전도회 활동이 어렵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김영희 집사\_서대문·은평교구, 3여전도 전임 지회장



중양월례회 후 회원들과 함께. 김영희 집사(앞줄 왼쪽 첫 번째)와 신진숙 집사(뒷줄 왼쪽 첫 번째)

###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 영혼 상쾌해져

2025년 서대문·은평 3여전도회 지회장을 맡은 신진숙 집사입니다. 개인적 상황과 걱정이 앞섰지만, 지회원들과 소통하며 '기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자!'라고 다짐하며 매월 첫째 토요일 특별 새벽기도 이후 한 시간씩 기도회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행정처에 장소를 신청하고, 기도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회원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는 찬양과 대표 기도로 시작해, 특별새벽기도회 위임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며 지회원들과 간증을 나눕니다. 이어서 나라와 선교사님,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25명 회원의 개별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습니다. 기도회 후 자유롭게 티타임을 가지며, 영혼이 상쾌해지는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달 더욱 안정되고 풍성한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꾸준히 기도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알아가며 함께 기도할수록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맡길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만남**

신진숙 집사\_서대문·은평교구, 3여전도회 7지회장

## 2025 제직부흥회… “주님께 하듯 섬기겠습니다”

목양부

제직들의 영성부흥을 위한 제직부흥회가 2월 16일 주일 찬양예배로 드러졌다. 목양부(부장 심재수 장로) 주관 탁현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제직부흥회의 강사 안광수 목사(수원성교회 원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마가복음 10:45)’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은혜의 그 감격을 품고 주의 일을 해 나가자”고 설교했다. 또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우리의 섬김은 가까운 가족부터 교회 성도들, 어려운 이웃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며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삶을 실천하자고 격려했다. 참



석한 제직들은 직분자로서 사명감을 고취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다시금 결단했다.

## 자녀와 함께한 가정 축복 특별금요기도회

교육부

새해를 맞아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을 마련한 “가정 축복 특별금요기도회”가 성도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2월 7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



서 진행되었다. 첫날인 7일에는 영아, 유아, 유치부, 아동부를 대상으로 이도복 목사(충신교회 교육총괄)가 ‘그 잎이 청청하며’(예레미야 17:78)라는 제목으로 자녀 양육 신앙 교육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 14일에는 베드로부, 대학부, 청년부를 대상으로 안용성 목사(그루터기교회, 장신대 교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사는 것’(누가복음 9:22~26)을 주제로 설교했다. 세 번째 주 21일에는 중·고등부, 사랑부, 자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윤광서 목사(영화교회 총회 교육자원부장)가 “원수와 담판할 때”(시편 127:1~5)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더했다. 이어 각 부서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는 가정들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 신년기도회…“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양육공동체 소망”

교육부

교육부(부장 조용철 장로) 신년기도회가 “은혜의 세대, 거룩한 부르심으로 비상하라(출애굽기 3: 5, 10)” 주제로 1월 25일(토) 드림홀과 제2식당에서 교육부의 교역자, 임원, 교사 3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1부 경건회는 홍지연 목사의 사회로 교역자 찬양팀(김혜민 전도사 외)의 찬양, 조용철 장로의 기도 후, 김운성 위임목사가 ‘모세의 또 한 가지 열매(출애굽기 33:7~11)’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목사는 “교사는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음세대로 잇는 모세 같은 소중한 사람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도 후 고등부 이영호 목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양육공동체”라는 비전과 함께 “다음세대 양육의 주체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명을 선언하고 교육방향을 제시했다. 신주현 목사의 인도로 뜨겁게 기도를 가진 후, 2부 교육부 각 부서 소개와 광고, 시상 후 저녁 식사, 부서별 교제의 시간으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 2025년 겨울 포이메네스 영성 수련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2025년 겨울 포이메네스 영성 수련’이 지난 2월 9일(주일)부터 14일(금)까지 영락수련원에서 열렸다. 한국 교회 각 교단에 속한 20명의 목회자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참석한 가운데, 이철신 원로목사는 ‘승리자의 감사’, 김운성 위임목사는 ‘가루 속에서 견디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목회자들을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권혁일 교수(한남대학교)의 기도 강의와 최광선 위임목사(덕신교회)의 영성강의, 김선종 위임목사(정음중앙교회)의 성서강의를 통해 깊은 묵상과 목회적 회복을 경험했다. 목회 강의를 맡은 서정오 원로목사(동송교회)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물처럼 부드럽게, 겸손하게, 한결같이, 하나 되어 목회하기를 격려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목회에 지치고, 실패와 실수가 많은 나를 환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 영적회복을 경험했다”며 귀한 기회를 제공하고 섬기는 영락교회에 감사사를 표했다.

## 미사노인복지관 개관식

영락사회복지재단

2월 4일(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미사노인복지관' 개관식이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지역주민과 관계 인사들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테이프 커팅, 경과 보고, 시설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영락사회복지재단 박홍준 이사장은 "미사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주민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어르신들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미사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배움과 소통을 돕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고상우 은퇴장로 별세

고상우 은퇴장로가 지난 1월 23일(목) 향년 91세로 별세했

다. 1933년 함경남도 풍산군 천남면에서 출생한 고인은 호산나찬

양대, 구역장 봉사를 하며 1977년 12월 집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보성학원 이사, 교육부 차장, 호산나찬양대 대장, 중등부 부감, 전도부 차장, 청년1부 부장, 평신도부 차장, 베들레헴찬

양대 대장으로 봉사하며 1986년 12월 제19회 시무장로로 장립되었다. 2003년까지 당회원으로 섬기며 관리 부장, 재정부 부장, 초등부 부장, 제1남선교회 회장, 50주년기념사업회 재정분과위원장, 선교부 부장,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재)영락교회유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교계활동으로 예장 장로회 총대를 3회 하셨습니다. 인도의 김영자 선교사 지원, 강원도 철원의 8736부대 교회 건축, 국제기드온협회 서울캠프 활동 등 선교에도 열정을 펼쳤다. 장례예식은 교회장으로 1월 25일(토)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김운성 위임목사의 집례로 드려졌으며 호산나찬양대의 조가, 한진유 은퇴장로의 조사,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장지인 영락공원묘원에서는 남정열 목사 집례로 하관예식을 드렸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익정 은퇴권사와 1남 1녀를 두었으며 오동희 장로가 사위다.





### 김성배 은퇴장로 별세

김성배 은퇴장로가 지난 2월 15일(토)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1938년 경남 고성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1964년부터 1996년까지 30여 년간 교육부 교사로 섬기며 1977년 집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교사양성부 부감, 베들레헴찬양대 부대장, 베다니 찬양대 대장, 설악산수양관 및 영락유치원 운영위원을 지내며 1995년 12월 제27회 시무장로로 장립됐다. 장립 후에는 50년사 편찬위원회 부위원장, 당회 목양분과 서기, 홍보출판부 부장, 영락여자신학원 이사, 장년부 부장, 서무부 부장, 식당운영위원, 영락공원묘원 이사,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2008년 12월까지 교회공동체를 섬겼다. 고인은 평생 교사로 봉직하며 한국기독교연맹 기독교 30년 근속교사 표창, 대광고 30년 근속교사 표창,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하며 대광고등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임 했다. 장례예식은 교회장으로 2월 17일(월) 오전8시 30분 본당에서 김운성 위임목사 집례로 드려졌다. 이어 장지 영락공원묘원에서 황재영 목사의 집례로 하관예식이 드려졌다. 유족으로는 2남을 두었다.



### 박순덕 은퇴장로 별세

박순덕 은퇴장로가 지난 2월 19일(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72세. 1952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출생한 고인은 교통안내부 실행위원을 시작으로 목양부, 친교부, 자원봉사부에서 서기로 봉사하며 2006년 12월 집사안수를 받았다. 이후 선교부 국내·농어촌선교팀장, 목양부 차장, 사회부 지도위원, 자원봉사부 지도위원, 신앙아카데미 부감, 상례부 실행위원, 예산위원회 교육분과팀장, 친교부 운영위원, 시설관리부 실행위원, 설비전문위원을 지내며, 2016년 12월 제44회 시무장로로 장립되었다. 장립 후에는 2022년까지 당회원으로 당회분과위 역사자료실 위원, 전도부 부장, 강동·송파 교구장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 장례예식은 교회장으로 2월 22일(토) 오전 8시 30분 본당에서 김운성 위임목사의 집례로 드려졌고, 이어 영락공원묘원에서 박성은 목사의 집례로 하관예식이 드려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나춘옥 권사와 2남1녀를 두었다.



# '봄의 전령사' 아몬드나무에 탄생과 부활의 꽃송이 활짝



## Almond Blossom

1890,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고흐의 “아몬드 나뭇가지(Almond Blossom)”는 1890년, 그의 형 테오의 아들(빈센트 윌렘)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그린 작품으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아몬드나무를 통해 새 생명과 부활, 그리고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밝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아몬드 꽃을 섬세하게 그린 이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구도와 색감이 돋보입니다. 일본 판화(우키요에\*)에서 영향을 받은 독특한 스타일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흐의 깊은 감수성을 잘 드러내며, 자연과 조화로운 삶에 대한 그의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아몬드 꽃이 가진 생명과 부활의 상징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은혜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이 작품은 창조주의 섭리를 반영한 아름다운 찬미이자 고흐의 내면에 깃든 신앙적 고백처럼 다가옵니다. **만남**

\*우키요에(浮世絵)는 일본 에도시대(17~19세기)에 유행했던 목판화 양식으로, '덧없는 세상의 그림'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2025년 3월호 통권 612호

발행 2025. 3.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독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현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조지형 소남호 이신일 김기선 박선이 정용성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 영락시어터 3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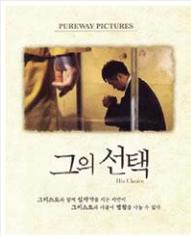


**크로싱** (Crossing, 2008) **12** 105분

**2일**

감독: 김태균 출연: 차인표, 신명철

2007년 북한 함경도 한 탄광 마을, 아버지 용수와 어머니 용화 그리고 열한 살 아들 준이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 어느 날 아내 용화가 폐결핵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용수는 감기약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는 북한의 형편에 중국행을 결심한다.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넘어 중국에 도착한 용수는 벌목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 되는데...



**그의 선택** (His Choice, 2007) **12** 100분

**9일**

감독: 권순도 출연: 최범호, 오한나 특별출연: 권오중

1936년 마산, 평양의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장로는 주기철 목사를 찾아가 주 목사의 평양행을 간곡히 설득한다. 주 목사는 결국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평양 산정현교회에 부임하고, 그즈음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다가 결국 교회에 부임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투옥된다.



**퀴바디스** (Quo Vadis, 1955) **12** 상 / 하 175분

**16일, 23일**

감독: 머빈 르로이 출연: 로버트 테일러, 데보라카, 피터 유스티노프

서기 64년,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로마 황제 폭군 네로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를 살해한 후 폼페이라는 매춘부를 황후로 세우고, 로마 제국의 제14군 사령관 마커스 비니키우스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 궁정 축제에서 아름다운 여인 리지아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1999) **ALL** 122분

**30일**

감독: 로베르토 베니니 출연: 로베르토 베니니, 니콜레타 브라스키

극악한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1930년대 말의 이탈리아. 귀도는 운명처럼 초등학교 교사인 도라를 만난다. 도라에겐 약혼자가 있었지만, 귀도의 순수하고 맑은 인생관과 꾸밈없는 유머에 이끌린 도라는 그와 결혼하여 아들 조슈아를 얻는다. 평화롭기 그지없던 이들 가족에게 어느 날 불행이 닥친다.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아몬드 나뭇가지 1890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